

[ 종합·해설 ]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전남 경선(29일) 관전 포인트



광주·전남 경선을 시를 앞둔 26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지역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향기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는 손학규 후보, 여수 2012 세계박람회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동영 후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해찬 후보. (왼쪽부터·기호순)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동영, '신대세론' 1위 이어갈까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전남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전남 경선 선거인단 수는 추석전 4차례의 경선보다 규모 면에서 월등해 24만6천 명이나 된다. 전체 선거인단의 17%에 해당되는 숫자다.

손학규, '대안론' 불지켜 역전 발판 만드나  
이해찬, 친노 결집 바람 일으킬지도 관심

무엇보다 5년 동안 깔고 닦은 조직력이 정 후보의 최대 장점. 또 광주에서 양영일·염동연 의원, 전남에서는 우윤근·이영호·주승용 의원의 지원이 많은 힘이 되고 있다.

광주·전남 경선을 마지막 승부처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전남, 특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광주에서만 승리하더라도 역전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원, 정동영 후보시장·이석형 함평군수 조직 등이 가세해 조직력에서 결코 밀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지난 경선 패배로 손상을 입은 '유일한 승리 대안론'을 다시 불지킬 수 있느냐이다.

이낙연 '8인 손지지' 발언 논란

대통합 민주신당 창당의 산과 역할을 했던 민주당 출신의 '8인 모임'이 광주·전남 신당경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갖고 있는 이들이 손 후보를 지지할 경우, 경선 관도는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취소하는 추근을 빚기도 했다.

으로 이낙연·채일병 의원, 정균환·김영진 전 의원 등이 손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석 호남 민심 어땠나

“호남정권 창출 어렵다” 우려속  
“단일후보 기폭제 역할” 기대도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맞은 추석 연휴기간 호남 민심은 희망과 우려가 교차했다는 분석이다.

로 선출되더라도 50%대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꺾을 수 있는나는 회의감도 함께 표출됐다.

“대선 투표 않을 것” 정치 무관심 팽배

젊은층 “한나라 집권하면 어때” 여론도

남 민심은 대선에 대한 기대감보다 심각한 우려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임도(38)씨는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민심은 절망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꿰뚫었다”며 “대선에 대한 우려감은 많지만 이번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경선을 계기로 분열했던 민주세력이 대선 막판 결집하면서 정권 창출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범여권 몰락의 배경으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원망과 함께 민생보다는 구호에만 안주한 정치인들의 무비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는 평가다.

한편, 범여권의 몰락에 따라 호남지역 20~30대를 중심으로 한 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떨느냐는 기류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062)220-0524

SONY의 모든 것 (062)227-9600

취업학원 국제결혼 (02)522-2000

사업계획서 (062)521-1532

대지부동산 T.062-371-2440

임야, 목장, 아파트 전문 (062)378-9776

상무우리공인중개사 T.062-375-5939

★ 급매대 ★ (062)711-9000

건물매매

적합사용용도 (062)711-9000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02)587-7400

고시원 매

♣조대 후문쪽 고시원 매매 (011)804-5239

당뇨병 영타리 치료법으로 고칠 수 없다 (070-7012-0246)